

수의사가 본 동유럽 몇나라

조 준 행

지구촌의 세계화는 착착 진행되어가고 있다. EC 국가의 공동시장 구성과 단일화폐로 치닫고 있는 요즘, 전신 정보의 대중화는 유럽 어느곳이나 일반인의 핸드폰으로 각나라를 즉시 통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동유럽국가는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체코 같은 나라는 금년 7월 1일부로 한국과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행하기에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 국경감시원의 무지와 그들 몸에 밴 철저한 외국인에 대한 조심성은 얼마간 지속될 것이나 차츰차츰 자유세계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가 만든 생활방식이나 습관은 쉽게 변할 수가 없어 자유경쟁의 시장경제를 몸에 익히기에 힘든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진취적이고 사물에 관심이 많은 일부 예능적이고 기술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새로운 세계의 품물이나 자유경제에 관심이 있는 약삭빠른 사람들에게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곳 어느나라나 걸보기에 악착스럽거나 분주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그저 덤덤한 물에 물탄듯 티를 내지않은 거리나 상점 그리고 옷입는 것까지 눈에 모가 나지 않았다. 거리에는 어느 도시건 오래된 자그마한 전차가 있었는데 이 전차도 보통 2대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움직임은 매우 조용하고 급하지 않게 다니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쾌속전차나 도르레가 달린 전기버스도 있었는데 이 역시 2대를 연결하여 다니고 있었다. 이처럼 한가하게 움직이는

대중승용차들은 관광버스 모양이지만 속도에 비해 매우 대조적이었다. 또 화물차도 간혹 눈에 띄는데 이 역시 크고 거의 2대가 연결되어 있으며 소형화물차는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그간 여러번의 크고 작은 전쟁과 소요를 치렀는데도 몇백년된 오래된 건물이 많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 건물들은 독특한 건축양식과 예술품으로 그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천년이나 된 성당은 물론이고 길바닥에 깔린 돌모습에서 오랜세월 풍파에 시달려 부서져 나간 성벽의 모양에서도 무언의 중후함을 느꼈다.

그들의 오랜 전통은 지정학적인 기후나 그들 민족들의 특성에 의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또 잘 보존하고 있었다. 이런 문화적 유산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세월 거센 풍파를 견뎌낸 후에야 비로서 이루어졌음을 알아낼 수가 있었다. 그들에게도 모지고 험난한 세월이 여러번 있었고, 이를 잘 견뎌낸 후 오늘과 같은 사회를 이룩한 것으로 안다.

육지의 연속인 유럽은 전쟁이 날 때마다 어느나라나 많은 남정네를 전사시켜서 혼자사는 유독 할머니 미망인이 많은데 혼자사는 할머니 중에는 한번도 결혼을 하지못한 처녀할머니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가이드에게 들으니 인간으로써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사람들은 여행을 새로운 세계의 도전이라고 하나 매우 짧은 기간에 그리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노자도 변번치 않으며 나이들어 활동력도 떨어지니 구석구석 볼거리를 놓친 아쉬움이 많았다.

1. 비엔나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로 일명 빈이라고도 부른다. 비엔나는 음악의 도시로 알려져 있듯이 음악의 천재 모짜르트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베토벤, 브라암스, 슈베르트 등 유명한 음악가들이 활동한 음악의 나라이며 또 우리에게 감격을 주었던 영화 "Sound of Music"의 배경인 알프스가 있는 아름다운 나라이기도 하다. 한때 유럽대륙의 절반을 지배했던 합수부르크왕조가 수백년동안 수도로 정했던 곳이기도 하다.

비엔나는 링이라고 하는 환상도로 양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시가지에 불만한 것이 많이 있다.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베토벤, 모짜르트, 괴테 등 많은 음악가들의 기념동상 그리고 국립오페라하우스까지 있어 과연 음악의 도시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구시가지의 한가운데는 비엔나의 상징인 성슈테판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은 13세기때 짓기 시작하여 16세기에 완성된 교회로 지금도 계속하여 년중 수리·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며 그 높이가 137m이고 지하에는 성인들의 납골당이 있다.

한편 합수부르크왕가의 여름별궁으로 사용된 쇤부르크 궁정은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정을 본떠서 만들었다는데 비엔나 관광에서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런 아름다운 관광지에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따라다니는 동물이 있었으니 바로 개이다.

유럽여행에서 느낀 것은 개가 사람이 다니는 곳이면 어디나 같이 따라다닌다는 사실이다. 넓고 시원한 공원은 물론이고 호텔이나 식당 그리고 전차나 버스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주인과 같이 늠름하게 타는 것을 보았다. 이런 개가 작은 개가 아니고 큼직한 셰퍼드나 도베르망인데도 불구하고 또 거리의 사람들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더욱이 성스테판성당 내에서 슈나우스를 보았을 때 여행객이 차안에 개를 태우고 다니며, 배낭여행하는 4인 가족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광경은 사진에서 보기에 얼마나 평화롭고 자연스러운지 모르겠다.

이 나라 오스트리아는 인구 700만명(비엔나 160만 명)이고 GNP는 2만 6천\$(세계 5위), 스위스 3만 2천\$, 독일 2만 5천\$으로 부강한 나라로 호수가 많은 동알프스에 있어 유럽의 중심이 된다. 사회당 집권 시 큰 종합공장을 많이 지어서 국가가 경영하고 있다. ① 토질이 좋아 농업생산량이 많고, ② 중공업이 발달하여 제철, 제광, 기계, 무기 생산량이 많으며, ③ 볼거리가 많아서 관광수입이 1인당 세계제일이다(작년 300억\$). 알프스의 심장인 오스트리아는 산속에 호수가 많아서 경치가 좋고 환경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휴양관광지로 소문나 있다.

봄, 가을, 늦가을은 문화관광이 적합하다

고적지는 합수부르크 왕가나 신성로마제국의 유적이 많고 음악의 도시로 음악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자기자기한 나라로 옛날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가 한나라 였었다. 이곳에 오는 한국 유학생들은 거의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음악가의 묘지에 오는데 남학생들은 꼭 소주와 오징어를 가져와 명인들의 묘에 인사하고 가는 관행이 있으며, 이 도시가 음악의 도시가 된 배경에는 이곳에 있었던 합수부르크 왕가가 매우 사교적으로 음악을 이용하여 바타칸을 합수부르크 왕가에게 신성로마제국이라는 호칭을 주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이곳 사람들은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음악을 들려주고 오페라로 3~4세부터 정장시키고 관람시킨다. 그러므로 20대에 가서는 거의 음악평론가가 된다. 그래서 비엔나 청중의 귀는 틀린 음울을 찾는 데 도사가 되어 있다.

이곳에서 정경화의 바이올린은 연주스타일이 많지 않으나 그래도 인정한다며, 또 음악이외로 건축의 도시이며 미술의 도시로 각종 문화적 국제행사가 많이 열린다. 89년부터 개방외교로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전보다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매춘, 마약, 범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서방세계와 다른 점이 많다. 또 휴식공간인 공원이 많아서 비엔나에만 200여곳에 공원이 있는데 이곳 역시 잘 가꾸어진 풀밭위를 페기니스나 하운드즈의 개들이 주인들과 즐겁게 뛰어놀고 있음은 지상의 낙원이다.

길 거리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여성이 하고 있으며 나이많은 늙은 부인들도 몸은 너석되고 얼굴에 비록 주름이 있어도 즐거운 미소로 일을 하고 있음은 매우 보기좋은 풍경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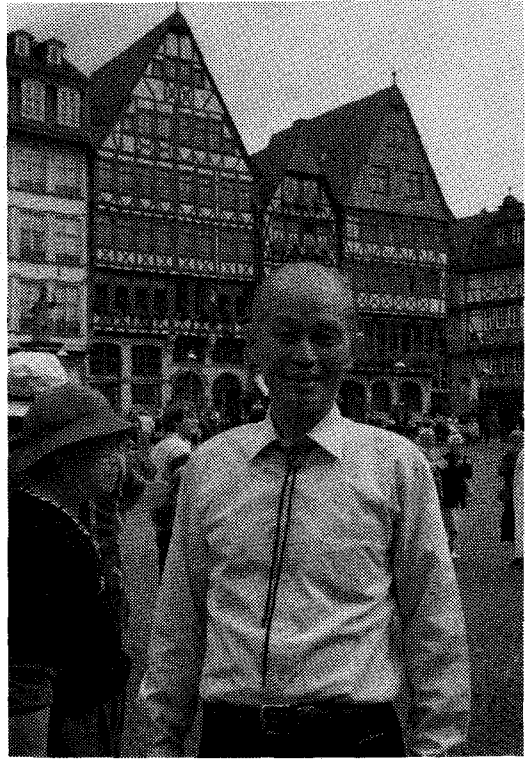
이 나라는 한마디로 멋이 있고 전통이 있으며 매우 보수적인 나라이다. 그래서 그런지 비엔나 할머니의 복장은 신성로마제국의 귀족이 입었던 전형적인 복장으로 바지 입은 할머니를 찾아볼 수 없었다. 길가에는 경찰관을 볼 수가 없었는데 길가의 집들은 대개 2~3층으로 어느 집이나 아래층은 가게이고 그 위층은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며 2층에 계신 할머니들은 감시자로서 2층창에서 밖의 범법자를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 이곳 사람들의 고발정신은 투철하여 가이드 이야긴 즉, 내가 태워준 학생이 태워준 나의 주차위반을 경찰에 고발하여 벌금을 물었다.

웅장한 비엔나 오페라 하우스 바른쪽에 괴테동상이 있고, 좌측에는 왕궁이 있으며 그 앞에는 나폴레옹과 싸운 구지칸장군의 말탄동상이 있다. 또 지나가다 본 총리공간 앞의 남녀경찰중 예쁜 여경찰의 모습은 아주 일품이었다(사진참고).

왕의 겨울공원은 천궁(天宮)이라 불리우는데 각종 진귀한 화초는 이 역시 평소에 보기도문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등나무로 만들어진 화랑같은 터널은 걷기도 하지만 그 모양 또한 멋있었다. 나무는 한국에도 있는 소나무, 포플라가 제일 많았고 호두나무와 이와 유사한 나무가 눈에 많이 띠었다.

시립공원에는 많은 조각품과 동상이 있는데 말 또한 잘 조각되어 있었으며 맹도견의 활약도 볼 수 있었다.

스테판성당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고 시계탑이 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선물상자가 많다. 특히 옆의 큰 상가길은 빈의 명동으로 세계 유명메이커의 출장소가 즐비하고 각국민의 물결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 사람이나 의상구경 그리고 각종 애완견을 볼 수가 있어서 매우 재미있는 거리로 필자는 이런 곳이라면 다음번에 다시 와서 2~3일간이라도 종일 구경하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또 특이한 머리모양과 옷모습을 한 신나치를 볼 수 있고 여장한 남자와 남장한 여자를



볼 수가 있다. 이외에도 옷통을 벗어채친 근육질의 버트랑카스타와 가죽옷을 겹겹히 끼입은 멋쟁이(?)도 볼 수 있었으나 피임약 달미트의 부작용으로 양팔이 붓어 앞날개같이 작아진 사람들을 보니 가슴이 몽클거리며 목이 팽배어져 눈덩이가 총혈되는 울적한 기분을 느꼈다.

군데군데 놓여져 있는 벤치에는 젊은 부인이나 할머니들이 팔려고 나온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도 볼 수 있었는데 귀여웠으나 좀 안쓰러웠다. 사진찍고 싶은 것은 많았으나 가끔 찬스를 놓쳤고 또는 정면으로 찍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때는 또다른 플래시사진기를 가지고 다녔으면 그래도 덜 놓쳤을텐데 후회하였다. 차창밖에서 비엔나工大를 지나 곧 건물 전체가 유리로 된 최신식 사라대학이 지나쳤다.

비엔나에는 아름다운 숲이 많은데 식당과 술집이 합해진 호일개나 일년생 포두주를 먹을 수 있는 그런집은 그곳 젊은이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즐겨 찾

는 곳이기도 하다. 나폴레옹은 본시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1세가 죽은후 2세는 인질로 잡혀서 궁중의 새나 꽃을 가꾸는 정원사 노릇을 하다가 젊은나이에 죽었고, 3세는 독일과 합방후 황제에 다시 올랐다.

나를 안내한 가이드는 오스트리아에 온지 11년되는 사람으로 맨몸으로 와서 독학하여 성공한 사람이다.

아 나라가 많은 민족이 모인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성이 여러가지이나 다른민족을 잘 받아드리고 화합하는 넉넉함이 뛰어나다.

2. 부다페스트

비엔나에서 이들을 권후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로 가는데 국경까지는 4차선 고속도로 연결되어 있다.

헝가리는 중부유럽의 평지로, 헝가리평야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생산량으로 유럽 전식구를 먹인다고 한다.

본시 부다페스트는 부다라는 도시와 페스트라는 두 도시가 합하여 만들어졌다. 부다페스트는 산과 평지, 강이 잘 배합된 아름다운 야경의 도시로 동부의 파리라고 한다. 몇번 먹지않은 현지식은 서울의 양식과 별로 차이가 없으나 음식이 간소하고 육질이 좋으나 야채가 좀 부족하고 사과나 복숭아, 토마도, 바나나 같은 과일은 풍부하며 간은 싱거운 편이고 소스를 덜 사용하는 것같다. 거리에 맥주집과 피자집이 많은데 피자는 꽤 끈기가 있고 질적거렸다. 아이스크림은 레몬게가 많았고 커피맛은 독특했다.

헝가리 국경에서는 여권에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기록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보통 1시간~1시간 30분이상 지체된다. 그러나 전에는 4~5시간 걸리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한다. 개방이 되었으나 아직 머리속은 공산주의의 관습으로 딱딱하고 무뎉뎉한 서비스를 볼 수가 있고 정치하는 사람의 도덕성은 칼같은 사회를 이루고 있다. 헝가리 돈 120plint가 1\$인데 음료수는 500"에 190plint이었으나 가는곳 마다 물병의 크기에 관계없이 1\$내외인 것이 이상하였고 또한 이곳도 맥주나 술이나 한병에 1\$~

2\$이었다.

헝가리민족은 본시 동양의 훈족이며 신성로마제국이 북쪽의 게르만족을 막기 위해서 8~9세기에 이곳에 정착시켰다고 한다. 헝가리 대부분이 평지이며 언어는 헝가리어(우랄 알타이어)이다.

12세기 오스만척기 침공하여 이후 오스만이 1차대전에 1/3의 영토가 없어지고 인구의 반이 사망하였다. 2차대전에 독일편을 들었고 1949년부터 헝가리 人民共和國으로 바르시아성명으로 중립하였으나 소련군이 다시 억압한 이후 개방정책을 하였고 국민소득은 정부에서 7000\$이라 하나 실제로는 3000\$정도이다. 인건비가 싸고 교통이 좋아서 이웃 오스트리아에서 농산물이나 여인의 맛사지, 파마 등과 생일 파티나 자동차수리를 하려고 오고 있으며 국경에는 가벼운 목책이 있을 뿐이고 국경지역인 모슬 무하라 도시는 인구 5000여명으로 길가는 각종 편의시설과 농산물 판매소를 개설하고 있으며 지금도 가게를 만드느라 야단이다. 이곳은 아직도 2차대전때 상처입은 탄알자욱이 있는 집이나 수리를 제때 못해서 허술한 가옥이 간간히 눈에 띈다. 이 도시는 순전히 오스트리아 때문에 먹고 산다. 이곳은 물가가 싸고 창밖에는 끝없는 옥수수밭과 만개된 해바라기밭이 보이고 간간히 수수밭도 보인다.

고속도로 부근은 밭 아니면 아카시아, 플라타나스, 포플라, 버드나무 숲이 있으며 또 이곳은 일정한 직업없이 떠돌아 다니는 짚시족(노래와 춤을 즐기는)의 본고장이란다. 마차와 트랙터가 공존하는 부다페스트는 인구 200만명으로 중부유럽에서 제일 큰 도시이다. 전에는 합수부르크왕가 터키(이슬람) 식민지였고 디닐부의 무름이라 부르는 다리가 아름다운 곳이다.

창밖에 장엄한 네오바로크식 왕궁의 돌기둥과 철책은 일품이다. 또 강변에 넓고 정중하게 자리잡고 있는 국회의사당은 멋이 있으며 터키식 사원 또한 볼만하다.

게레렛다산정에는 평화의 탑과 그 바로 아래에는 소련군 참전비가 있으며 이곳에서 시 전체가 잘 보인다. 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다니루강은 헝가

리말로 투나강이라 부르고 부다아카데미(학술원), 부다 카지노, 벨테부르디고(아름다운) 날은 더워 35℃에 육박하여 아스팔트가 녹아나는 지경으로 관광버스 바퀴자국이 주차장에 움푹 파인다.

페스트의 중심에는 영웅의 광장이 있고, 시민의 광장, 카부리의 천사, 무명용사묘, 부다유겐스타일이 있는데 무명용사의 묘에는 24시간 교대로 의장병이 규율있는 각계동작으로 관광객을 매혹시킨다. 곳곳의 교회는 성당이고 군데군데 온천장이 있는데 이곳 온도는 평균 40℃로 뜨겁지가 않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온천의 도시이다. 이곳에는 국제수준의 온천이 무려 450군데 있으며 날마다 7000만ℓ나 분출하고 있어 그 규모는 대단하다.

3. 부로노

체코 부로노는 기계공업의 중심지로 1년에 한번씩 기계박람회, 기술, 무기산업(아카보소총), 자동차 등 중공업국가인 공화국으로 1987년 시인지도자 바지락카페인이 당선, 정치는 크라우스수상이 하는데 철저한 자본주의 심봉자이고 GNP 70% 이상이 국유이고 재산은 2차대전전의 소유주에게 원상복귀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이곳 주민은 남의 물건은 훔치는 것에 죄의식이 없다. 따라서 도덕심이나 수치심이 없고 자본주의가 들어와 돈이 제일로 치고 있다.

인구 1000만명 1993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고 이 도시에도 연결전차와 도르레버스가 다닌다. 천주교인이 전인구의 60%이고 인구 50만인 공업도시로 소득이 낮은 GNP 5000\$이다.

성베드로성당(초기 성당으로 16세기)은 2차대전시 많이 망가졌음. 노트리의 시계탑, 시민공원, 산성감옥(17세기) 이곳에 갈치맨 1일 500cc의 물과 빵 한개 배급. 일단 이곳에 들어가면 거의 죽어서 나오는 곳 여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울성당이 있고 아직도 2차대전후 보수 못한 건물이 많다.

4. 프라하

이 도시는 5개의 소도시가 합하여 하나의 도시로

되어 5군데 건축물이 모두 독특하다. 또 탑이 많아서 백탑의 도시라고 부른다. 사회주의 국가일때 주택, 도로는 해결했으나 서민생활과 사회보장은 지금 어려움은 겪고 있으며 환경은 자꾸 나빠짐. 모든 것이 생산위주로 계획경제로 움직임.

경제학자 말대로 동구라파는 결제로 망한다고! 지금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기계공업, 화학공업이 발달되었고 유리가공업이 발달 체코 크리스탈(자수정)은 세계적이다. 1969년 혁명실패, 1989년 성공.

유겐스타 프라하박물관은 합수부르크왕가형이다. 민족은 슬라부족(러시아 우크라이나족)에 약간의 게르만족의 피가 섞여 있다. 2차대전 전에 세계 8대 강국으로 89년 민주화혁명, 90년에 독립. 체코 1000만, 슬로바키아 500만, 국어는 체코어(슬라부어 40~60% 비율). 천주교 45%, 개신교 50%. 고문 25:1\$, GNP는 7800\$. 교민 50~60명. 이중 가장 오래된 교민이 5년 거주한 사람이고 이곳 건축물중 500년에 걸쳐 건축하여 1000년전 완성된 건물도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도로변에는 과거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시코다車工場이 있었고, 나스맥주工場이 있었다. 이 도시는 1300년이 되는 오래된 도시로 이곳 저곳에 고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이 도시의 이름을 100탑의 도시라고 부르게 된 경위는 어느날 피테가 산정에 올라서서 내려보니 시가지에 많은 탑이 있어서 100탑의 도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5. 예쁜도시 로덴부르크

이곳 가이드는 독일에 온지 14년된 기계공학도가(송영제)가 맡었는데 어쩌나 잘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순 서울태생으로 종로 한복판 덕수국민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더욱 친밀감을 느꼈으며 환칠한 키에 매우 상냥한 말씨는 일행을 매우 편안하게 하여 주었다.

그는 자기소개후 첫이야기가 이곳 도시가 성곽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이 성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처음 쌓은 성곽이 적어져서 다시 밖에 외벽을 쌓았으며 성안에 사는 사람은 불루조아라 부른다고 한

다.

서기 1132년에 시작된 이 도시는 1224년 자치시로 되고, 1544년 마틴루터 종교개혁시 가톨릭 비린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곳 시청광장에 모든 시민을 모아놓고 3500cc의 술잔에 술을 가득 부어놓고 시민 중 누구든지 이 술잔의 술을 다 마실 수 있으면 이 도시를 살려주겠다는 말을 한즉 너무나 큰 술잔이기에 아무도 나오지 않자 시장 룯시가 나와 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 도시의 시민의 살육을 겨우 면하게 되었다는 전설과 그 술잔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다.

이 도시는 교통이 불편하나 문화도시로서, 특색있는 관광도시로써 길은 꾸불꾸불하고 바닥은 돌을 깔았고 길가의 가게는 저마다 특색있는 쇼윈도와 아기자기하고 특색있는 간판을 내걸어,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데 군데군데 잘 보존되어 있는 고대 건축물은 그 멋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그리고 매년 5월에 있는 성심 강림제에는 150만의 관광객으로 피크를 이룬다.

이 도시도 2차대전시 아주 폐허가 되어 재건문제로 한때 말이 많았으나 결국 재건하기로 되어 과거와 아주 같은 식의 도시를 만들었다. 이것이 독일인의 특징으로 아주 복구를 잘하며 반대로 일본인은 모방하는 기술은 아무도 따를 수가 없다.

시 중심에 있는 라타하우스는 반고딕 반르네상스 건축으로 높이가 60m나 된다. 과거의 도시는 성으로 쌓여있고 성안의 식수원인 우물은 가장 중요하다. 시청앞에 있는 게우로 헤루티우물은 유명하다.

유럽에서 어디를 가건 먹는 물이 문제이다. 그래서인지 맥주나 술이 발달되었고 먹는 물의 95%가 지하수인데 이 물은 석회질이고 약간의 가스가 들어가 있다. 과거 유럽에서 발생한 페스트는 수질오염으로 생겨났다.

제2차 대전후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 심한 인력부족으로 한국에서 광부와 간호원이 파견된 적도 있었으며 지금은 한국과 교역량은 일본,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6. 로덴부르크

남동으로 서울-울산쯤

면적 33.5만 m^2 (한반도 21.5만 m^2)으로 한반도의 1.6배이기에 남한의 4배 넓이, 인구 8500만명/한국 한 가정 평균 자녀수 1.8, 독일 0.8,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대/남은 알프스산, 북은 평야지대.

산림정책이 잘 되어 앞으로 50년동안 나무를 팔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녹색당의 활동으로 곳곳에 전나무 적송이 우거져 있으며 민족은 게르만민족으로 라틴계통 불란서, 이태리(한국사람같이 명랑, 활발하고 게으름 그리고 돌아서면 꼭 돌아서는)와 슬라부족 헝가리, 체코(침착, 근면, 점잔)으로 구성되어 있고 날씨탓인지 무뚝뚝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 수 있는가가 최대관심이다.

7. 뷔르츠부르크(프랑계 지방)

이 도시는 맥주고장으로 인구 12만 9천명, 종교는 거의 그리스정교 외 불교, 마호멧교 2차대전시 공습으로 90% 이상 파손되었으나 본 모습대로 재건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프랑계 포도주라 부르고 있다.

바바로사가 황녀와 결혼 로만티가도의 출발지가 되었으며 2000년 역사의 대학이 있고 라인강이 있는 도시이다. 1931년 농민봉기시 구스타프 아돌프가 정복하여 큰 정원을 만들고 이곳 역시 마진성, 백조의 성이 유명하며 1년에 두번씩 모차르트축제가 열린다.

8. 프랑크푸르트

일요일은 15분 간격으로 종소리가 난다. 오른쪽 언덕에 포도밭 후랑켄 와인.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보니 ① 마린부릭, ② 하이델 베르그, ③ 라인강변이 보인다. 대부분의 도시엔

전차가 있고 전차가 안가는 곳엔 버스가 다니고 자가용차, 자전거가 있는데 한국의 포니, 엑셀이 지나가는 것을 보니 반가웠다.

이곳에 오는 일본인들은 문화관광에서 휴양관광을 하며 독일인은 흰색술을 좋아하고 블란서 사람들은 붉은색 술을 즐긴다. 유럽식당에서 포도주 고르는 것은 신부 고르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와인이 상했을 때 콜크가 섞여있으며 와인을 먹을 때 와인표를 보고 생산년도와 어느 지방것인가 보고 콜크를 따후 시음확인한 후 잔은 채워들고 조금 미소를 짓고 상대방을 보고 마시는데 서로 이야기할 때는 눈과 눈을 연결하고 상대방을 주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곳에는 논농사가 없다. 이유는 쌀을 먹는 사람도 드물지만 날씨가 차고 감자나 밀이 먹기 편하기 때문이다. 또한가지 이곳에서 좋은 쌀은 선풍기에 밥알이 펄펄 날아야 좋은 쌀이라고. 생산되는 30% 정도의 잉여농산물은 소련 우크라이나와 가스 기름과 물물교환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밀, 사탕, 무(긴무), 감자, 옥수수(가축사료), 유채(5월), 해바라기, 입담배,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밤이고, 채소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국사람수가 5~6만 명으로 늘어나자 하우스 채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상추는 그 종류가 7~8가지로 색깔이나 맛도 가지가지이다. 한국교민들은 주말이면 가족, 친지를 동반하여 야외에 나가 바베큐요리를 해먹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취미이다. 이곳 차색깔은 검정색이 없고 쥐색차도 어찌다가 있다.

가이드는 아무로 판을 탄다며 에란트(란트) 200K/hr 현대 스크푸, 기아 세피아, 대우 넥시아, 엑셀 선전에 340억을 쓰고 있다. 앞으로 쌍용의 무쏘도 판매할 예정이란다.

처음 1800년말 벤츠회사에서 차를 만들었을 때 자동차가 통 팔리지 않고 있었을 때 오스트리아 황제가 자기 딸이름을 차이름에 붙여주면 60대를 사겠다고 하여 메르산 벤츠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곳에서는 자동차 이외에도 배나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

한국정부에서도 고품스러운 벤츠500을 50대나 88 올림픽에 사들였다. 한국에선 2억 2천만원인데 현지에선 1억5천만정도란다. 요새 젊은이에게 유행하는 BMW는 거의 승차감이나 속도도 비슷하다고. 벤츠 230 2300cc로 136마력 가장 이상적. 한국에선 80% 이상이 오토인데 본고장인 독일은 80%가 수동(5기아)이다. 여기선 1단 10K, 2단 30K, 3단 50K, 그러나 한국인은 기아를 저속에서 고속으로 빨리 변속한다. 스포츠카는 푸루시아 아우디가 손꼽히고 전에는 맥주회사 5000개가 있었으나 기계시설의 현대화로 현재는 500개 정도 남아있음.

이런 교통 표시판이 있으면 무조건 우선, 없으면 오른쪽이 우선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 현장에서 판정한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자기 아내가 80년도 도요다 1300cc 160K 쓴 중고차를 8년전에 1500Mark로 샀는데 충돌사고로 보상 1800Mark나 받았고 그후 1주후 또 접촉사고로 500Mark(25만원) 받았다고 하며, 자동차사고가 나면 싸울 필요없이 서로 웃고 보험금 받는다고! Main江은 체코로 부터 시작되고 프랑푸르트안오드강은 1201년전에 만들어졌고 2일전에 이곳에서 보트경기가 있었다. 매주 토요일에는 강변 풀밭광장에서 벼룩시장이 열리는데 관광객에게 매우 흥미로운 구경거리며 쇼펍의 찬스이다.

옛날에는 성당에서 황제를 선출했으나 1562년부터 선거로 인한 황제의 대관식을 하였으나 최초의 국민회의에서 황제를 내쫓아 냈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순환전차의 속도는 70km이다.

이곳에서 딸딸이 아빠란 딸이 둘있는 아버지 별명이다.

낳은 아기의 성별로 점수를 매기면 딸 아들 150점, 아들 딸 100점, 딸 딸 70점, 딸×2 딸×1 200점, 아들 아들은 50점이란다. 딸이 아들보다 점수가 높는데 그것도 나오는 순서에 따라 그 수에 따라 다르다 아기를 낳으면 2년간 엄마에게 월100(한아이 낳을때)~150(두아이 낳을때)M, 세아이 째는 200M를 국가에서 지급한다. 지금 다시 법을 개정해서 한아이당 220~250M를 예정하고 있다.

어느집에서나 저녁 8시가 되면 아이는 아기방에 (강인한 성격형성) 부모는 영화관이나 댄스파티에 간다. 우리와 다른 것이 애기를 낳은 산모는 곧 사위하고 술한잔 한다고!! 그래서인지 구라파 여인들은 중년에 몸이 비대해지고 다리가 굵어지며 관절염을 많이 앓고 있다.

주부의 60% 이상이 맞벌이를 하며 생활은 본인 부부위주로 하는데 3세에 유치원에 가면 시립 1인 3만M정도이고 국민학교에서 대학까지는 시에서 보내준다. 탁아소는 5~600M정도이다. 유치원 교육은 협동정신만을 강요하고 숫자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6개월전에 글공부를 시킨다. 1학년 산수 1~20자까지, 2학년 20~100자까지 또 1~4학년까지 한 선생이 가르친다. 대학시험은 독일어, 수학, 산수시험이다.

동독사람은 나이가 60세가 되면 1개월간 서독에서 살 수 있고 여태껏 이념의 차이로 동독사람이 서독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독사람의 소득은 서독인에 비해 1/2이나 소비물자의 값은 똑같다. 또 서독, 동독 선생교환제가 실패했고 동서독 8500만중 400만이 실업자인데 동독 1000만명중 150만명이 실업자이다.

귀순자의 말에 의하면 독일에 와서 북한에서도 남한이 잘사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들을 업신여길까 봐 불안을 느낀다고. 국내치안이 불안정하고 또 부도덕한 못사는 북한에서 자기 부모를 죽이는 일이 없단다.

인간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독일 민주시민의 교육이 좋고 그들 준법정신(누구나 법앞에는 평등하다는), 지도자가 국민을 위한, 경제인의 도덕성 사회보장제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제도가 부럽다. 모든 사람이 내가 할일 내가 한다면 통일은 앞당겨지지 않을까?

9. 쾰른

쾰른은 콜롬비아 식민지로서 쾰른성당은 세계 3대 코딕성당이 있으며 추기경의 고장으로 독일에서 이

제까지 7명의 추기경을 배출하였고 인구 80만명으로 독일에서 4대도시중 하나다. 소비도시이며 정밀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쾰른성당은 그 규모가 높이 157m, 가로 147m, 630년된 오래된 성당으로 지금도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10. 암스테르담

Netherlands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바다보다 낮은 곳은 평균 해면에서 6~7m 아래에 있는 국토가 전국토의 25%나 된다. 인구 1500만명이며 한국의 경남북도의 크기인데 인구밀도는 높다. 이곳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유대학이 있다.

이 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아도 땅이 평평하고 산이 없는 곳이다. GNP는 2만 2천\$이며 직장은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후 1시까지 휴무이다 이 나라의 기계산업은 고도로 발달하여 자동차는 안만들어도 비행기는 만든다. 교통은 고속도로, 기차, 운하 등이며 1972 Olympic대회때 축구의 강적 독일을 격파하기도 하였다.

이 나라 역시 처녀할머니들이 많고 연결버스나 자전거길이 어디나 나있는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는 나라이다. 이유는 건강을 위한 것도 있으나 기름절약과 환경오염을 생각해서 국민 모두 자전해서 자전거를 탄다. 자전거가 전국에 50만대 있는데 1년에 잃어버리는 자전거수도 20만대나 된다. 이곳 비자를 받으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여행객중 일본인과 한국인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또 EC통합후 국경이 없어져 처음 들어올 때와 나갈 때만 검문한다. 부자는 시내에 살지 않고 요트있는 곳에서 즐기기 위해 산다. 수입금의 14~52%가 세금으로 내고 초봉은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원이며 월수입 300만원 이상이면 의료보험혜택이 없다. 애기를 낳으면 의료혜택외 700만원을 지출한다. 그래서 교포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애기를 낳는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약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이곳 부부는 코를 골아 이혼당하고 이혼하면 친구나 형제를 소개시켜서 상대방이 빨리

결혼하도록 애쓴다. 그 이유는 상대가 결혼할 때까지 자기수입의 50%를 상대방 생활비로 주어야 하기에 2번 이혼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도망가야 한다. ¼수입으로 살수없기 때문에!

1년 365일중 35일을 빼고 매일 비가 온다. 풍차의 나라는 이름뿐이고 온종일 풍차는 모양있게 만들어진 것 한개만을 볼 수 있었다. 비행장은 수면아래 9m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통 시가지는 4~5m 아래

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후에 민감하여 비는 년 750mm 온다.

별로 아는 것없이 보고 듣는대로 대충 써가다 보니 글이 이상스럽거나 간혹 틀린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 양해있으시길 바라며 기회가 되신다면 새로 개정된 동유럽의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나 따라 다니는 애견의 생활이 곧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대한수의사회지 합본판 배포 안내

본회에서 발간하는 대한수의사회지의 연도별 합본판을 한정판으로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실비로 배포하고자하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합본판 현황

발간년도	권수	발간년도	권수	발간년도	권수
1977-78	7	1986	10	1992	29
1979-80	9	1987	10	1993	29
1981-82	9	1988	14	1994	29
1983	10	1989	11	1995	29
1984	10	1990	19		
1985	10	1991	19		

공급가격 : 15,000원/합본 권당(발송비용 포함)

(송금후 발송처를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금구좌 : 은행명 : 농협중앙회 신촌지점

구좌번호 037-17-001052

예금주 : 대한수의사회